

고든 비 힝클리 회장(가운데), 제일회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왼쪽), 그리고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10년간 제일회장단으로 함께 봉사했다.

취임 10주년을 축하하는 제일회장단

교회를 인도하도록 부름을 받은 지 십 년이 된 고든 비 힝클리 회장과 제일회장단의 두 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과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은 기자 회견에서 지난 10년 동안 교회의 수많은 도전과 성취에 관하여 이야기했으며 미래에 대한 지속적인 낙관을 표현했다. 힝클리 회장은 교회의 15대 회장이 된 이래 몇

가지 중요한 일들로 회원들과 다른 사람들의 삶에 축복이 임했다고 말했다.

그는 영구 교육 기금 설립의 공표와 성공, 컨퍼런스 센터의 건설, 지난 10년간 5천만 권 이상의 몰몬경 배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 대한 상당한 금액의 인도주의적인 지원 기금의 기부 등을 언급했다.

1995년부터 2005년까지 한눈에 살펴보기

- 3백만 9백 10만에서 1천 2백만으로 회원 증가
- 87 헌납 및 재헌납, 또는 발표된 성전
- 19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몰몬경을 번역한 추가 언어로 총 106개 언어에 이름

- 641백만 111개국에서 비상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105백만 달러를 포함하여 인도주의적 지원으로 제공된 미화
- 98,763 95개국의 사람들에게 기증한 휠체어
- 40 정수 시스템을 설치한 나라
- 1천 6백만 킬로미터 힝클리 회장은 70개국 이상을 방문하기 위해 여행했다



hingkli 회장이 교회의 회장이 된 이래 87개의 성전이 헌납 및 재헌납, 또는 발표되었다.

hingkli 회장은 1995년 이후로 자신이 했던 여행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했다. 그는 70개국 이상을 여행했으며 1백 60

만 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하는 기록을 세웠다. “여행은 무척 피곤하고 지루하지만 신

앙을 증진시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여러분이 사람들 가운데 나아가 그들의 힘과 역량, 그들의 헌신과 사랑을 볼 때면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말 굉장합니다.”

hingkli 회장은 함께 봉사하기에 더 훌륭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로 두 보좌에 대한 신뢰를 표했으며, 그들이 지혜롭고, 신앙이 깊으며,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몬슨 회장과 파우스트 회장은 hingkli 회장이 하는 일에 대해 감탄의 말을 했다.

“회장님은 두려움을 모르는 선견을 지니신 분입니다.”라고 몬슨 회장은 말했다. “그분은 계획하고, 준비하고, 기도한 다음 그분에게 오는 예언적인 영향력으로 ...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hingkli 회장은 자신과 자신의 두 보좌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에 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늘 우리는 그저 우리의 최선을 다할 뿐이며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Deseret Morning News 기사 제공

제일회장단 연대표

1995년 3월 12일

제일회장단 성별.

1995년 9월 23일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발표.

1996년 2월 28일

국제 지역(미국 이외의 지역)의 교회 회원 수가 미국의 교회 회원 수를 초과.

1996년 4월 6일

hingkli 회장이 컨퍼런스 센터 건축 계획 발표.

1996년 5월 27일

hingkli 회장이 중국 본토를 방문한 교회의 첫 회장이 됨.

1996년 11월 2일

제일회장단이 후기 성도 자선회 설립 발표.

1997년 4월 5일

두 해 앞서 만든 비상근 지역 지도자 지위인 지역 관리 역원 부름을 위해 칠십인 정원회 수 추가.

1997년 10월 4일

hingkli 회장이 소규모 성전

교회, 현재 미국에서 네 번째로 가장 큼; 전세계적으로 지속되는 성장

전 세계적인 성장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미국 내의 교회 성장도 계속되고 있다.

2005년 *Yearbook of American and Canadian Churches*(미국과 캐나다 교회 연감)에서 두 나라가 제공하는 숫자에 의하면, 2004년에 보고된 5백 5십만 명 이상의 회원이 있는 미국에서 교회는 현재 네 번째로 가장 큰 종파이다. 일년 전에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종교 단체였던 교회는 연감에 따르면, 2004년 동안 미국에서 1.71퍼센트 성장률을 나타내며

“놀랄 만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세계적인 교회의 성장은 또한 주목할 만하다. 4월 연차 대회에서 보고한 통계에 의하면, 전세계의 회원수가 2004년 말에 거의 1천 2백 3십만 명에 달했다. 2004년 동안 240,000 이상의 개종자가 침례를 받았으며, 기록상의 자녀들은 거의 100,000명으로 증가했다.

회원 수의 증가로 2004년 동안 41개의 새 스테이크, 1개의 새 선교부, 2개의 새 지방부, 433개의 새 와드와 지부가 조직되었다.

1995년에 교회 회장으로 지지 받은 이래 교회 회원이 삼백만 명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보아 온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주님의 사업이 계속해서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능자의 사업에서 새 날이 도래한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 사업은 성장하고 강화되어 지상 곳곳으로 퍼졌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찬란한 아침이 밝아옴”, 리 아호나, 2004년 5월, 83쪽) ■

영어 찬송가, 출판 20년 주년; 21개 언어로 출판됨

채드 패리스, 교회 잡지

에머 스미스가 최초로 찬송가를 수집하여 *A Collection of Sacred Hymns for the Church of the Latter Day Saints*(후기 성도 교회를 위한 성스러운 찬송가 모음집)을 출판한 지 170년을 맞아 전세계 교회 회원들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찬송가 1985년 영문판

20주년을 현재 기념하고 있다.

341곡의 찬송가가 담겨 있는 1985년 영어판은 다른 언어로 인쇄될 새 찬송가 책을 위한 표준이 될 것으로 알고 만들어졌다.

1985년 찬송가 책에 제일회장단 머리는 이렇게 나와 있다. “모든 찬송가는

오늘날 전세계 교회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게 선정되었습니다.”(찬송가, ix)

1985년판에 있는 수많은 찬송가는 21개 언어로 번역되었으며, 추가 번역이 계속되고 있다.

찬송가가 최초로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을 때, 그 모음집에는 35곡의 찬송가

<p>건축 계획 발표.</p> <p>1997년 11월</p> <p>전세계의 교회 회원수가 1000만에 이룸.</p> <p>2000년 1월 1일</p> <p>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가 구세주에 대한</p>	<p>사도들의 증언을 선언하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을 발표.</p> <p>2000년 4월 1~2일</p> <p>21,000 석 규모의 새로운 컨퍼런스 센터에서 첫 연차 대회 개최.</p>	<p>2001년 3월 31일</p> <p>힝클리 회장이 영구 교육 기금 설립 발표.</p> <p>2002년 6월 27일</p> <p>힝클리 회장이 재건축한 일리노이 나무 성전 헌납.</p>	<p>2003년 1월 11일</p> <p>제1회 전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이 56개 언어로 97 퍼센트 이상의 교회 신권 지도자들에게 위성으로 방송.</p>
---	---	---	---

와 10곡의 어린이 노래가 들어 있었다. 한 언어 그룹 내의 회원들이 충분히 증가한 후에, 여러 언어에서 표준이 되는 노래 107곡, 권장하는 추가 선택 찬송가 50곡 및 각 언어별 위원회가 선정한 찬송가 50곡이 들어 있는 새로운 찬송가 책이 번역되었다.

때때로 음악에 경험이 있는 번역가를 찾는 것이 어렵지만 본부 음악 위원회의

위원장 마이클 무디는 각 언어로 표현되는 찬송가의 일관성은 바로 신앙을 증진시켜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의 아름다움 중 하나는 우리가 단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무디 형제는 말했다. “전세계에서 똑같은 메시지와 음악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찬송가 책을 위한 찬송가를 선정한 단

체인 찬송가 책 집행 위원회는 1980년대 초반에 부름을 받았다. 이 위원회는 음악가, 역사가, 음악 편집가 및 가사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또한 찬송가 책을 만드는 데 기여했던 여러 개의 소위원회와 조사 그룹이 있었다

선정 위원회는 피드백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였고 적절하게 선정했으며, 주님의 직접적인 인도가 있었다.

수년 동안 장단 맞추어: 영어 LDS 찬송가책 표본

1835 *A Collection of Sacred Hymns for the Church of the Latter Day Saints.* 에머 스미스는 이 최초의 교회 찬송가 책에 90곡의 찬송가 가사를 포함시켰다.

1840 *A Collection of Sacred Hymns for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 Europe.* 이

찬송가 25곡의 초판은 영국, 맨체스터에서 브리검 영, 팔리 피 프렛과 존 테일러에 의해 출판되었다.

1889 *Latter-day Saints' Psalmody.* 이것은 가사가 있는 악보를 포함한 최초의 LDS 찬송가 대모음집이었다.

1908 *Songs of Zion.* 합창단을 중심으로 한 찬송가 *Latter-day Saints' Psalmody*와는 대조로 *Songs of Zion*에는 약 100곡의 찬송가가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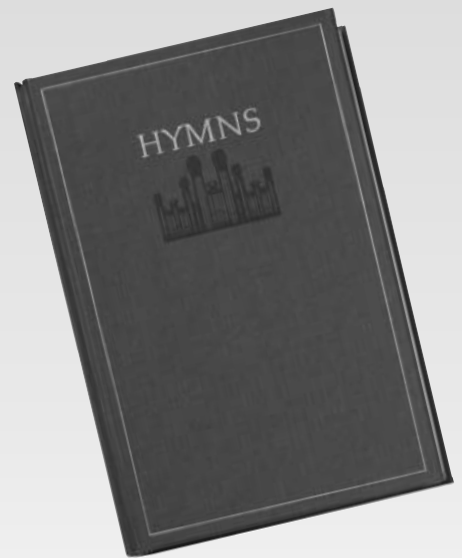
1909 *Deseret Sunday School Songs.* 이 책은 주일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으나, *Deseret Sunday School Songs*은 그 당시에 교회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찬송가 책이 되었다.

1927 *Latter-day Saint Hymns.* 이

찬송가는 *Latter-day Saints' Psalmody*, *Songs of Zion*과 다른 선곡들 중에서 최상의 곡을 통합한 것으로 *Deseret Sunday School Songs*와 함께 사용되었다.

1948 *Hymns,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이 책은 네 가지 일반적인 종별, 즉 회중, 합창단, 남성용, 여성용으로 분류했다.

1985 *Hymns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이 책은 모든 후기 성도 세대로부터 나온 다양한 찬송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21개의 언어로 된 찬송가 책의 기초가 되었다. ■



1985년 판 찬송가 책은 20년 전에 출판된 이래 21개의 언어로 된 찬송가 책의 기초가 되었다.

이십 년 전 무디 형제는 템플 스퀘어의 어셈블리 홀에서 열린 선교부장을 위한 모임에 참여하도록 초대받았다. 모임 동안, 선교사 훈련원에서 온 선교사들이 “주 섬기라”(찬송가 145장)를 부르며 행진해 들어왔다.

건물 안의 분위기가 고조되었으며, 비록 선정 과정이 지났지만 위원회는 “그 찬송가를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무디 형제는 말했다. 그 찬송가는 1985년판에서 가장 마지막에 포함되었다.

1985년판 찬송가 책에 에머 스미스의 최초 찬송가 책에 담겨 있던 26곡의 찬송가가 포함되어 있는 반면, 1985년판에 있는 92곡의 찬송가는 새로운 곡이었다. 이 찬송가들 중에 44곡이 후기 성도가 작곡한 새로운 곡이었다.

찬송가에 더하여, 1985년판은 또한 음악 지휘를 시작하는 자들에게 지침을

주고, 찬송가를 합창단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며, 교회 모임에 올바른 찬송가를 선택하는 데 조언을 주는 “찬송가 책의 사용”이라는 제목의 안내서를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가 기억할 만한 찬송가를 선정하고 있었을 때, 음악적인 재능에 관계없이 모든 회원들에게 유익이 될 찬송가를 고르기 위해 애를 썼다고 무디 형제는 말했다.

1985년판의 제일회장단 머리글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포함되어 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찬송가를 사용하여 주님의 영을 우리의 회중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개인 생활에 불러들이도록 하십시오. 찬송가를 암송하고 생각해 보며, 음미하고 노래 부르며, 그 영적인 양분을 취하도록 하십시오. 의인의 노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니, [여러분] 머리 위에 축복을 주어 응답 하실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찬송가, x) ■

용하지만 21,333 석의 컨퍼런스 센터 청중석(대강당)은 지금까지 지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극장식 청중석으로 여겨진다. 두 번째로 가장 큰 것은 멕시코에 있는 국립 극장으로 약 11,000 석이다. 그러나 컨퍼런스 센터를 유일하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였다.

보잉 747 비행기가 여유 있게 들어갈 정도로 충분히 큰 청중석은 24만 입방미터에 이른다. 태버내클의 크기는 4만2천 입방 미터이다. 유명한 런던 로열 앨버트홀은 컨퍼런스 센터 크기의 3분의 1이 약간 상회 하는 것으로 9만 5천 입방미터이다.

게다가 청중석에는 양탄자가 깔려 있고, 좌석에 천을 씌웠으며, 천장과 벽은 반향을 줄이기 위해 방음 처리를 해서 그 건물의 원래 목적인 말씀을 듣기에는 이상적이다. 그러나, 합창단과 반주자에게는 음향 효과에 있어서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다.

음향은 공기의 흐름에 따라 만들어진 다. 물론 태버내클 합창단의 음악 지휘자인 크레이그 제섭은 청중석 안에 움직이는 공기가 너무 많아서 그곳에서 공연을 하는 것은 “야외에서 노래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한다.

물론 태버내클과 같은 대합창단조차도 몇 가지 증폭 — 각 공연에 의존하는 연속적인 조정을 요구하는 작용 — 없이는 그 공간을 적절하게 채울 수 없다. 증폭은 청중이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합창단원들 각자가 서로의 노래를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합창단 자리에도 확성기가 놓여 있다.

대회장의 규모상 합창단 없이 오르간 독주 시에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울 수 있어야 하며 합창단 반주 시에도 합창단

태버내클 합창단, 독특한 컨퍼런스 센터에 익숙해지고 있는 중

애덤 시 올슨, 교회 잡지

지진에 대비한 구조 개선과 합창단 시설 증축을 위한 템플 스퀘어의 역사적인 솔트레이크 태버내클 수리가 끝나는 2006년 후반까지, 물론 태버내클 합창단은 컨퍼런스 센터로 이전해야 했다.

수많은 회원들이 합창단 공연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2000년 이래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되는 연차 대회 동안이다. 그래서 회원들은 지난 5년에 걸쳐 합창단이 그곳에서 공연하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매년 연차 대회와 약간의 다른 공연을 제외하고, 매주 방송되는 Music

and the Spoken Word(음악과 진리의 말씀)를 포함하여 합창단의 대다수 공연은 태버내클에서 계속 행해져 왔다. 1867년에 건물이 헌납된 이래 합창단의 고향이 되어온 그 건물의 개축 결정에 따라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전과 관련된 계획과 이행의 어려움 — 합창단 도서실과 옷장은 템플 스퀘어의 지하에 남겨 두고 — 외에도 합창단과 오르간 연주자는 음향 효과가 완전히 다른 건물에서 당면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적응해야 했다.

태버내클의 좌석은 약 5,000명을 수

컨퍼런스 센터의 독특한 오르간

건 물의 크기 외에,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에게 있어서 태버나클과 컨퍼런스 센터 사이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 중에 하나는 두 개의 오르간에 있다.

태버나클 오르간은 그것의 역사, 음향, 크기로 유명하며 11,600 개의 파이프와 206 개의 배열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큰 오르간 15대 중에서 최고로 꼽히고 있다.

컨퍼런스 센터의 오르간은 세계에서 가장 큰 것에 속하지는 않지만(7,667 개 파이프 130배열), 여전히 위풍 당당한 악기로 손꼽힌다. 거대한 컨퍼런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것이다. 다섯 개의 건반 연주대는 혼하지 않은 것이다.

“5줄의 건반으로 만들어진 오르간은 많지 않습니다.”라고 태버나클 오르간 연주자인 클레이 크리스천슨은 말한다. “그리고 우리 생애에서 이 오르간만큼 베이스 부분을 웅장한 소리가 나도록 만든 오르간은 없었습니다. 놀라운 악기입니다.”

오르간을 만드는 것은 개념화로부터 청중석에서 각 파이프의 최종 “유성화”(또는 음향 테스트)까지 7년간의 프로젝트였다. 수천 개의 파이프 설치만으로도 2000년 4월에 그 건물에서 열린 첫 연차 대회 바로 후부터 3년이 경과했으며, 하나는 2003년까지도 완성하지 못했다. 그 대회 동안에 합창단은 전자 오르간으로 반주 했다.

그 첫 대회 동안 설치된 파이프들은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라고 태버나클 오르간 연주자 존 룡허스트는 말한다. “그것은 7,700개 중 약 170개였습니다.”

오르간 제작자인 Schoenstein & Co.는 몇 개의 오르간 부품을 오하이오, 일리노이,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캘리포니아, 독일 및 영국까지 세계 전역에 있는 회사로부터 구했다.

“오르간 제작자는 일반 시공 업자와 같습니다.”라고 룡허스트 형제는 말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작하고



존 룡허스트는 컨퍼런스 센터에서 물론 태버나클 합창단의 반주를 한다.

할 수 없는 것은 하청을 줍니다. 컨퍼런스 센터 프로젝트의 규모상 더 많은 회사들이 특수성보다는 최종 기한을 맞추기 위해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르간은 그 정도의 일과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누구든지 그것을 보면 감탄합니다.”라고 크리스천슨 형제는 말한다. “그 소리를 들듣고나면 또 한번 감탄합니다.” ■



컨퍼런스 센터의 오르간은 7,667개의 파이프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청중이 볼 수 있는 170개의 파이프 뒤에 숨어 있다.

스 센터의 청중석을 채우기 위해 그 오르간의 많은 파이프는 오르간의 키에 동력을 공급하기 위해 보통보다 더 높은, 총 38마력의 송풍기 여섯 대로 제공되는 풍압을 사용한다. 그것은 땅이 흔들리는 64피트 범위로 낮아져 GGGGG#(개략적으로 그랜드 피아노보다 한 옥타브 낮음)에 도달하게 하는 두 개의 파이프 선택을 가지고 있는



오르간의 파이프는 모든 모양과 크기에 있어서 길이가 44밀리미터에서 12미터에 이른다.

의 소리를 잘 살려 줄 수 있는 오르간을 필요로 한다. 대부분의 오르간 연주 기법은 동일하지만 각 오르간마다 소리도 다르고 필요로 하는 연주대 배치도 다르다.

“각 오르간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습니다.”라고 태버내클 오르간 연주자 존 롱허스트는 말한다. “각각은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공간을 위해 독특하게 설계되고 만들어졌습니다. 오르간 연주자는 각 오르간이 갖고 있는 고유의 소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컨퍼런스 센터 오르간에 관한 관련 기사 참조)

그러나, 제섭 형제는 합창단이 컨퍼런스 센터에서 장기간 머무는 것은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 음향상의 문제는 우리가 그곳에서 공연할 때마다 이야기해야 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정기적으로 그곳에서 공연함으로써 우리는 이전에 일년에 겨우 두세 번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말할 시간

을 갖지 못했던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었습니다.”

합창단에게는 그 건물이 몇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섭 형제의 말에 의하면 관련된 사람들은 컨퍼런스 센터가 “참으로 영감에 의해 지어진” 것이라고 믿는다.

“컨퍼런스 센터는 1867년의 태버내클 만큼이나 2000년에 획기적인 것이었습니다. 연차 대회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수만 명의 회원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실제로 참석한 가운데 앉아서 청취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또한 그 건물이 기술적으로 진보된 스튜디오와 방송 장비를 갖추어 “복음 메시지를 전세계에 전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라고 지적한다.

“문화적인 면에서 세계는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홀 중에 하나라는 것을 서서히 깨닫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들조차 컨퍼런스 센터와 같은 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이미 헌납되었거나 10월까지 헌납 될 네 개의 성전

3월에 제일회장단은 서로 다른 세 개의 대륙에서 네 개의 성전을 위한 일반 공개일과 헌납일을 발표했다. 텍사스 샌안토니오는 이미 헌납되었으며,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성전, 사모아 아피아 성전이 10월 연차 대회 이전에 헌납될 것이다.

텍사스 샌 안토니오 성전

텍사스 샌 안토니오 성전의 일반 공개가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있었다. 일반 공개에 뒤이어 성전은 5월 22일 일요일에 네 번의 헌납 모임을 통해 공식적으로 헌납되었다.

텍사스 샌 안토니오 성전은 텍사스에서 네 번째로 운영하는 성전이며 성전 지역 경계 내에 거주하는 대략 50,000명의 교회 회원들이 이용한다.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의 일반 공개가 6월 18일부터 7월 2일까지 있었다. 축하를 위한 문화 행사가 8월 6일에 열릴 예정이다. 다음 날인 8월 7일에 네 번의 헌납 모임으로 헌납된다. 성전 의식은 8월 8일부터 시작된다.

나이지리아 아바 성전은 아프리카에서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성전과 가나 아

크라 성전에 이어 세 번째 성전이 된다.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성전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성전의 일반 공개는 7월 23일부터 8월 20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있게 될 예정이다. 축하를 위한 문화 행사는 8월 27일 토요일에 열린다. 성전 헌납은 8월 28일에 네 번의 헌납 모임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음날인 8월 29일부터 성전 의식이 시작된다.

캘리포니아 뉴포트비치 성전은 캘리포니아에서 여섯 번째로 헌납되는 성전이다.

사모아 아피아 성전

2년여 전, 2003년에 화재로 소실된 사모아 아피아 성전이 9월 4일에 네 번의 헌납 모임으로 재 헌납될 예정이다.

2003년 7월 수리를 하는 동안 화재로 내부가 손상된 성전은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일반인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축하를 위한 문화 행사는 헌납 전날인 9월 3일에 열린다. 9월 5일에 성전 의식이 시작된다. ■

정정: 교리와 성약 도표

리아호나, 2005년 1월호 16쪽의 “교리와 성약 시대 개관”에서, 27편. 1830년 8월 아래에 본문은 다음과 같이 바로 잡아야 합니다. “뉴얼 나이트와 샬리 나이트는 성찬을 취하고 싶었다.” 1834년에 사망한 샬리 코번은 뉴얼 나이트의 첫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1835년에 리다아 골드웨이트와 결혼했습니다. ■ 다음은 초등학교 지도자들이 2005년 리아

2005년 8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호나 8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이러한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과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의 어린이란의 4쪽과 5쪽에 있는 “성신의 은사”를 참조한다.

1. 어린이들이 신앙개조 제1조를 암기하도록 한다.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살과 뼈로 된 몸을 갖고 있음을 가르치기 위해 복음 그림 패킷 403(첫번째 시현)과 602(성신의 은사)를 사용한다. 성신은 영적 존재이다.(교리와 성약 130:22 참조) 성신은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성신으로부터 오는 간증을 얻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필요가 있는가? 최근의 개종자, 선교사, 또는 와드나 지부 회원을 초대하여 그가 자신의 삶에서 얻은 성신의 증거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한다. 복음 그림 패킷이나 초등학교 그림 패킷에서 어린이들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여 주는 그림을 복사한다. 이를테면, 복음 그림 패킷 604(성찬 전 달), 605(기도하는 남자 아이), 또는 616(가족과 함께). 간증이라는 글자가 들어 있는 그림을 선택한다. 각 그림의 뒷면에 한 글자를 적어 칠판에 붙이고 간증을 읽는다. 한 어린이를 나오게 해서 한 글자를 뒤집고 그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하게 한다. 어린이들에게 그림에 나오는 것을 행할 방법이나 시간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한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가? 이 활동이 그들의 간증을 키우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어린이들의 대답을 듣고, 노래나 찬송가로 그 원리를 강조한다. 모든 그림이 보여 질 때까지 계속한다.

2. 여러분이 어린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간단한 지시에 따르라고 말할 때 작은 소리로 이야기한다. “손을 머리에 얹어요. 서서 천장에 닿도록 손을 뻗어요. 앉아서 팔짱을 끼세요.” 성신도 “작고 조용한 소리”로 말하며, 우리는 종종 느낌으로 성신의 소리를 “듣는다”고 설명한다. 물문서 8장 1~7절을 살펴보고 모로나이에 대해 약간의 배경 설명을 한다. 모로나이는 성신의 은사와 그것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금판에 그가 마지막으로 기록한 것 중 몇 가지는 우리에게 영의 축복에 대해 가르쳐 준다. 칠판이나 개인적으로 만든 표를 사용하여 어린이들에게 짝 맞추기 게임을 하게 한다. 다른 면에 여러 가지 영의 은사를 뒤섞어 표를 만든다. 어린이들에게 성구를 찾아서 다음에 나오는 성신의 은사와 짝을 맞추게 한다. (1) 모로나이서 10:9~10 —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가르친다. (2) 모로나이서 10:11 — 신앙과 병 고침. (3) 모로나이서 10:12 — 큰 기적을 행한다. (4) 모로나이서 10:13

— 예언. (5) 모로나이서 10:14 — 천사를 봄. (6) 모로나이서 10:15~16 — 방언과 통변. 신앙개조 제7조를 암송한다. 여러분 자신의 실례를 들어 이러한 성신의 은사를 설명하거나, 또는 다음을 사용한다. (1) 최근 연차 대회 연사의 간증을 이야기한다. (2) 초등학교 5 교사 교재, 제 19과, 보충 활동 4번에 나오는 이야기. (3) 고든 비 헝클리 회장님과 성전 건축. (“성전에 관한 생각, 개종자의 지속적인 활동, 선교사업”, 성도의 벗, 1998년 1월호, 49~52, “복음의 ‘최고의 축복’을 가져다줄 새로운 성전들”, 성도의 벗, 1998년 7월호, 87~88 참조) (4) 델린 에이지 옥스 장로, “재림을 위한 준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7~10쪽 (5) 복음이 천사들의 성역으로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다.(조셉 스미스-역사 1:12, 30~32, 68~70 참조) (6) 초등학교 3 교사 교재, 제24과에 나오는 요시히코 기꾸찌 장로의 이야기. 모로나이서 10장 4~5절을 함께 암송한다. 성신의 은사로 인한 축복에 대해 간증한다. ■

성신의 은사

성신의 은사는 성신에게서 오는 영적 축복입니다. 성신은 우리에게 영적 축복을 주시며,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영적 자유를 얻고,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신의 은사는 영적 축복을 주시며,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영적 자유를 얻고,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신의 은사는 영적 축복입니다. 성신은 우리에게 영적 축복을 주시며,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영적 자유를 얻고,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신의 은사는 영적 축복을 주시며,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영적 자유를 얻고,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신의 은사는 영적 축복입니다. 성신은 우리에게 영적 축복을 주시며,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영적 자유를 얻고,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신의 은사는 영적 축복을 주시며, 우리는 성신의 은사를 통해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영적 자유를 얻고, 영적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 깨뜨린 근무 조건, 그리고 그 결과

“절대 교회에 다니라고 권유하지 말 것!” 25년 전 이명심 자매가 선교사 숙소에서 일하기로 하면서 선교사들에게 제시한 가장 엄격하면서도 유일한 근무 조건이었다. 이 자매의 음식 솜씨에 관한 그녀의 음식을 맛본 선교사 누구나 자연스럽게 엄지 손가락을 세워보일 만큼 뛰어났지만, 교회에 관한 입장에서만큼은 누구나 고개를 저을 만큼 완강했다.

장조카인 구구우 형제의 권유로 선교사 숙소 일을 돕기 시작하면서 제시했던 이 자매의 ‘근무 조건’이 그렇게 엄격할 수 없었지만, 6개월 여의 기간 동안 지켜봐 온 선교사들의 자세가 그녀의 완강한 태도를 무너뜨려가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 먼 곳까지 왔을까? 낯선 타국 땅, 타향 땅에 와서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 걸까? 대가를 전혀 받지 않고 봉사하면서도 늘 행복에 가득 차 있는 선교사들의 모습은 이 자매에게는 터할 나위 없이 훌륭한 생활의 모범이었다. 어느 선교사도 그녀에게 교회에 다니라고 권유하지 않았지만, 그들을 지켜 보는 동안 ‘조셉 스미스’라는 이름이 귀에 익고 몇몇 찬송가들이 입에 익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자신의 근무 조건을 취소하기에 이르렀다. 이때가 1980년 8월 23일이다. 침례를 받은 것이다.

스스로 근무 조건을 파기하고 교회 회원이 된 이 자매는 전임 선교사로부터 가장 잘 훈련된 회원 선교사가 되기 시작했다. 교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남편인 구교만 형제에게 교회에서 배운 것들을 몇 번이고 들려주었다. 남편도 호인이 아닐 수 없다. 아내의 가르침을 묵묵히 다 들어준 것이다. 한번은 이 자매가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 돌아와 미처 자신도 그 원리를 다 파악하지 못한 채 남편에게 그 내용을 이야기 해 준 적이 있었다. 그 다음 날부터 남편인 구 형제는 커피를 마시지 않았다. 부창부수(婦唱夫隨)가 따로 없다. 구교만 형제는 1981년 8월 29일에 침례 받았다. 그리고 곧바로 주일학교 회장으로 부름 받았다. 교회 회원이 된 순서로 처서 선배가 된 아내와 후배가 된 남편은 머리를 맞대고 복음을 공부했다. 그리고 선교 사업의 손길을 율타리 밖으로 내밀기 시작했다.



이들 부부는 조카인 하금희 자매의 가족을 방문하면서 교회의 가르침들을 함께 나누었다. 하금희 자매는 남편 박일충 형제 및 아들 박진형 형제와 함께 선교사를 만나보기로 결심한다. 선교사들의 이러한 만남은 곧 하금희 자매의 조카인 정범호 형제 및 쌍둥이 자매 난희, 국희 자매에게로 연결되었다. 여섯 명이 동시에 가족 토론을 시작한 끝에 1992년 9월 13일 이 여섯 명의 침례식이 있었다. 당시 선교사들과 함께 토론했던 대가족은 선교사와의 토론이 마냥 즐겁기만 했다고 회고한다.

그 후 5년이 지난 후 이명심 자매는 언니인 이춘순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 또 5년이 흐른 뒤에는 조카인 하금례 자매에게도 복음이 전달 되었다. 한 사람의 힘이 이렇게 큰 것이다.

이명심 자매인들 25년 전 자신이 제시한 ‘근무 조건’을 파기하고 교회 회원이 될 때만 해도 이렇게 많은 가족이 자신과 함께 할 것이라고 상상인들 했을까? 또 이렇게 많은 가족을 개종 시키겠다고 포부 가득한 계획이라도 세웠을까? 하루하루 교회의 가르침 대로 생활하고자 노력한 그 정성이 신앙이 되고 그 신앙이 모범이 되어 거대한 강물처럼 가족들의 영혼을 적신 것이 아닐까? 이명심 자매와 가족들은 최소한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 주님의 품 안에서 함께 할 수 있기에 진실로 행복하다는 것을.

* 이명심 자매 가족, 하금희 자매 가족과 이춘순 자매는 온천와드에, 하금례 자매 가족은 김해 지부에 나가고 있다.



고든 비 힝클리

조용한 아침의 나라.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에 대한 사랑은 매우 각별하다. 그를 만나본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피부로 느낀다. 한국에서 왔다고 인사 드리면 그는 거침없이 한국어로 인사말을 건넨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선지자를 뵈는 것만으로도 가슴 떨릴 일인데 그의 각별한 한국 사랑 앞에서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별로 없다. 만 95세가 넘은 그분이 한국을 찾는다. 한국 헌납 50주년 행사들을 감리하기 위해서이다. 언제나 한국 백성들을 풍성하게 축복해주었던 그분이 벌써부터 기다려진다. 이번 8월호에서는 그 동안 한국과 깊은 인연을 맺어온 힝클리 회장의 한국 방문기를 신는다. 많은 독자들이 유쾌한 추억을 떠올려보기를 기대한다.

◆ 힝클리 회장의 약력 ◆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거의 47년 동안 총관리 역원으로 봉사해 왔다. 그는 1958년 부터 3년 이상을 십이사도 정원회 보조로 봉사했다. 또한 1961년 10월에 십이사도 정원회에 부름받아 20년 동안 사도로서 봉사했다. 그는 1981년 7월,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의 보좌를 시작으로 하여 14년 동안 제일회장단의 일원으로 봉사했다. 김볼 회장 재임시에는 제2보좌로 봉사했고,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과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의 재임시에는 제1보좌로 봉사했다. 헌터 회장의 보좌로 봉사하는 동안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으로 성별되었다.

1910년 6월 23일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출생한 힝클리 회장은 유타 대학교에서 문학사 학위를 받았으며, 1935년

에 영국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귀환한 후에 교회 공보 프로그램 개발 임무를 맡았다. 그 후 20여 년동안, 그는 교회 공보 업무를 관리했으며, 교회에 최초로 전자 미디어 매체를 도입했다. 그 후 7년 동안 본부 선교사 위원회의 집행 서기로 일했으며, 스테이크 회장으로도 봉사했다. 힝클리 회장은 교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계 전역을 수없이 여행했으며, 교회의 세분의 제일정원회 회장의 보좌로 봉사하는 동안, 교회 역사상 어떤 지도자가 헌납한 것보다 많은, 22개의 성전을 헌납했다. 부인인 마조리와 사이에 다섯 자녀가 있다.

한국과 처음으로 인연을 맺은 1960년대

십이사도 보조와 십이사도로 봉사하셨던 1960년대에 아시아 지역을 담당하시며 한국을 거의 3개월에 한번꼴로 자



1962년 청운동 한국 선교부 방문

회장님과 한국 성도와의 만남

주 방문 하였다. 그 중 중요한 방문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960년 겨울 한국 처음 방문
- 1961년 5월 한국 교회를 돌아보러 방한 중 5·16 혁명 목격
- 1964년 4월 제일회장단 제1보좌 휴비 브라운 회장과 십이사도의 일원으로서 한국 방문
- 1966년 9월 10일 서울 용두동 소재의 예배당을 헌납. 이로써 아시아 대륙 제1호의 교회 정규 예배당이 세워짐
- 1967년 4월 27일 제일회장단 제1보좌 휴비 브라운 회장이 고든 비 힝클리 장로를 동반하여 한국을 방문, 현 청운동의 국기 계양대를 헌납하였고 이 모임에 독립 운동가 이갑성 선생 초대

1968년 4월 태평양 지역을 관장하게 됨에 따라 한국 재방문

태평양 지역을 관장하게 된 힝클리 회장(당시 십이사도, 이후 생략)이 힝클리 자매와 함께 1968년 4월 27일 JAL 비행기편으로 방한했다. 극동 지역 방문의 일환으로 내한한 힝클리 회장 부처는 선교부 회장단과 지방부 역원들의 환영을 받으며 트랩을 밟았다. 힝클리 회장은 트랩에서부터 손을 흔들며 오랜 여행에도 끄떡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오후 7시 선교부 노변의 모임에서 힝클리 회장은 우리 교회의 교리를 하나 하

나 풀이해 주면서 후기에 회복된 교회의 교리를 제시해 주었다.

1975년 8월 14일 한국 대회를 위해 김벌회장과 함께 방한

1975년 8월 15일~17일 사흘간 한국 대회가 개최되었다. 힝클리 회장(당시 십이사도)은 8월 16일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니이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받은 간증을 조리에 맞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에도 주저하지 않고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는 그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같은 날 저녁 부모의 밤 모임에서는 “네개의 모퉁이 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했다. 주님의 자녀로 위대한 가정을 이

룩할 때 튼튼한 기초가 되는 4개의 모퉁이 돌에 대하여 말씀 했다. 첫번째 모퉁이 돌은 상호 존중이고, 두 번째 모퉁이 돌은 유순한 대답이며, 세 번째 모퉁이 돌은 주님께 정직한 십일조와 헌금을 바치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모퉁이 돌은 가족 기도라고 설명했다. 힝클리 회장은 네개의 모퉁이 돌을 통하여 한국의 성도들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했다.

1979년 9월 6일 부산 스테이크 조직

1979년 9월 6일 7시 부산 지부에서 힝클리 회장(당시 십이사도)이 감리하는 가운데 부산 스테이크가 탄생되었다. 이 모임에서 힝클리 회장은 성도들이 주님의 계명과 성약에 따라 살 때 약속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권고했다. 약 800여 명의 성도가 모인 이 자리에서 이호남 선교부 회장은 새로운 스테이크를 탄생시킨 주인공으로서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했다.



1975년 8월 한국 대회 기자 회견

1979년 9월 9일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

서울 서 스테이크 대회가 헝클리 회장(당시 십이사도)이 감리하는 가운데 9월 9일 개최되었다. 7와드에서 1,750여 명의 성도가 모인 가운데 열린 이 모임에서 서 스테이크는 새로운 스테이크를 탄생시키는 커다란 기쁨을 맛보았다. 이날 대회에서 헝클리 회장은 성도들이 좀더 노력하면 또 하나의 스테이크를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1980년 10월 한국 대회를 위해 김볼 회장과 함께 한국 방문

1980년 10월 25~26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80년 한국 대회를 서울 선교부(청운동 7번지)에서 가졌다. 80년 한국 대회는 75년 한국 대회를 개최한 이래 5년 만에 갖는 뜻깊은 모임이었으며, 특히 연로한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과 함께할 수 있는 모임이었다.

헝클리 회장(당시 십이사도)은 대회를 준비하느라 수고한 당시 한인상 지역 대표와 그 밖의 많은 역원 및 회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빼놓지 않았다. 시내 각 일간 신문과 주간 종교, 코리아 헤럴드, MBC-TV, KBS 등 매스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80년 한국 대회에 관해 보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도 교회를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85년 12월 한국 서울 성전 헌납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 방문

1985년 12월에 10억 이상의 인구가 모여 사는 광대한 아시아 대륙에서 첫번째 성전이 헌납되어 “고요한 아침의 나라”인 한국에 새시대의 장이 열렸다.

제일회장단의 제1보좌인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헌납식의 행사를 감리하면서 대한민국 사람들과의 오랜 친분을 되새기며 추억에 잠겼다. 그는 한국 사람들은 침략과 전쟁으로 시련을 겪어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고 친절할 민족이라고 말했



1985년 12월 14일 성전 정초식

다. 그는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보다도 한국에서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내가 한국에 처음 온 것은 25년 전입니다.”라고 그는 헌납 모임에서 말했다. “그때는 쉰 살이었는데 지금은 일흔다섯 살입니다. 나는 한국에 오면서 나이를 먹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참으로 많은 경험을 했는데 고통스러운 것도 있었지만 아름다운 경험도 많습니다. 이곳에는 물자도 없었고 일자리도 찾기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큰 고통이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여파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이나 가난했습니다.

“처음으로 겨울에 방한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이 날리고 있었으며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이 땅을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 나는 이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집이 없는 많은 사람들이 추위를 막기 위해 판자집에서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1980년 10월 21일에 열린 서울 지역 대회에서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인용했다.

“스펜서 더블류 김볼 회장님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복음대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며, 십일조와 헌금을 정직하게 바친다면 주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보다 잘 먹을 것이며, 보다 잘 입을 것이며, 겨울에 따뜻하게 지내게 될 것이며 평안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김볼 회장님은 선지자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그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빈곤이 산재해 있으나 많은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여러 번의 헌납 모임에서 헝클리 회장은 몇몇 충실한 초기 성도들에 관해 언급했다. 그중에는 뉴욕 코넬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교회 회원이 되어 한국에서 신앙의 기초가 된 김호직 형제에 관한 말씀도 포함되었다.

1986년 부산 지역 대회 감리를 위해 방한

부산, 부산 서, 대구 스테이크 성도들을 위한 부산 지역 대회가 1986년 10월 18, 19일 이틀 동안 개최되었다. 총관리 역원들은 부산에서의 교회의 괄목할 만한 성장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 특별히 고든 비 헝클리 회장은 250여 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지역 합창단의 찬송을 들은 후 한국인의 합창은 세상의 다른 합창단이 따

를 수 없는 세계 제일의 합창이라고 극찬했다. 그는 또한 지난 연차 대회에서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이 강조한 물몬경 읽기와 연구는 우리 후기 성도들이 환난의 시기를 대비 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기도를 위한 준비,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 성전 사업을 위한 준비와 생업을 위한 준비를 잘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힝클리 회장은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한국과 이곳의 성도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림으로써 참석한 모든 성도의 기쁨을 몽클하게 했으며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눈시울을 적시게 하였다.

1987년 9월 서울 지역 대회를 감리하기 위해 한국 방문

1987년 9월 12일과 13일 서울 지역 대회가 있었다. 이 지역대회에는 힝클리 회장 내외분과 함께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와 아시아 지역 회장 더글러스 에이치 스미스 장로 내외가 함께 동반하였다. 12일의 신권 지도자 모임은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서울 스테이크의 신당 와드 건물에서 있었고, 13일의 일반 총회는 서울역 맞은 편에 위치

한 힐튼 호텔 국제 회의장에서 있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당시 제일회장단 제1보좌)이 감리한 토요일 신권 지도자 모임에는 약 540여 명의 신권 지도자들이 참석했으며, 일요일 총회에는 5,300여 명이 참석했다. 토요일 신권 지도자 모임에서 힝클리 회장은 1966년에 한국에 32명의 선교사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600명이 있으며 그 당시에는 전국에 7개뿐이던 지부가 오늘날 150개 이상의 와드와 지부로 성장했다고 말씀했다. 또한 그 당시에는 없던 스테이크가 오늘날 14개가 있으며 당시에는 없던 성전이 있으니 기적이라고 했다. 또한 힝클리 회장은 복음이 개인과 국가를 축복 할 수 있다고 하며, 성전에 자주 갈 것을 권고했다. 힝클리 회장은 또한 이렇게 말씀했다. “한국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축복이란 선물입니다. 선물은 사랑의 상징입니다. 신권을 소유한 형제로서 여러분은 병든 자의 머리에 손을 얹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권의 권세로 축복하여야 하며, 한국 백성을 축복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늘 축복을 주시지는 않으시나 그 축복을 끌어내는 것은 여러분의 임무이며 권리입니다. 또한 모임에서 경전을 가르치고, 경전을 읽도록 권고하고, 경전의 말씀으

로 축복하여야 합니다.” 또한 힝클리 회장은 한국에 주님이 계시나 사탄도 있음을 기억하여 죄로부터 깨끗하라고 말씀했다. 주변의 유혹을 이기고 조심하라고 거듭 강조 했다.

일요일 총회 모임에서 힝클리 회장은 말씀을 하는 도중에 지역 합창단 지휘자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불러주도록 요청하였으며 합창단의 찬송에 눈물을 흘렸다. 힝클리 회장은 고 김호직 박사에 대해 말씀하며 그가 한국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기초를 놓았다고 말씀했다. 이제 기초는 놓여졌으며 그 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하여 국가가 발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했다.

“비록 오늘의 고난이 클지라도 앞으로 올 것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품격이 여러분의 생활에 반영되고 있으며 여러분이 성취한 놀라운 기적이 이 땅에서 보았습니다. 경제적 기적이 있었으나 또 다른 기적이 있으니 이는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되는 선교사들이 백성이 영접하는 것이며 이곳에 있는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축복의 열매들이니 오늘을 기점으로 하여 한국에 또 다른 장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하자”고 말씀했다. 끝으로 힝클리 회장은 “제가 주님의 손의 상처를 보았고 그분의 옆구리의 상처를 한국에서 보았습니다.”라고 간증했다.

1991년 4월 광주 지역 대회와 서울, 서울 지역 대회 참석차 방한

광주 지역 대회

1991년 4월 20일~21일 양일간 힝클리 회장의 감리 아래 광주 실내 체육관에서 지역 대회를 가졌다. 처음으로 지역 대회를 갖게 된 광주 지역 성도들은 약 6개월 전부터 이 대회를 위해 열심히 준비해왔다. 광주 스테이크 센터에서 신권회를 가졌으며 일요일 총회는 광주 실내 체육관에서 가졌다.



1987년 9월 서울 지역 대회



1995년 9월 온누리 합창단 미국 방문

20일 오전에 고든 비 힝클리 회장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 장로 부부, 아시아 지역 회장으로 봉사하시는 멀린 알 리버트 장로 부부가 도착하여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신권회를 가졌다. 힝클리 회장은 선교 사업과 교회의 사명 및 벤슨 회장의 근황에 대해 말씀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그분처럼 훌륭하게 될 수 있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다음 날인 21일에는 일요 총회가 있었다. 힝클리 회장은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교회의 초창기 상황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었으며 성도들은 그때를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 지역 대회

1991년 4월 28일 오전 남산에 있는 힐튼 호텔 국제 회의장에서 서울 지역 대회를 가졌다. 제일회장단 제1보좌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이 마지막 연사로 말씀을 했다. 그는 성도들에게 많지 않은 사람들이 옳은 일을 행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러한 소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청소년들은 세미나리에 등록하여 참석하고 성인들은 종교 교육원 과정을 통해 교회에서 제공하는 복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유익하게 받아들일 것을 권고 하였다. 후기 성도로서 행하기 쉽고

단순한 지침 5가지를 제안했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1. 매일 기도하십시오.
2. 정직한 십일조를 바치십시오.
3. 매일 친절하고 행동을 하십시오.
4. 매일 경전을 공부하십시오.
5. 자신의 부름에 충실히 봉사하십시오.

위의 다섯 가지 제안은 우리 생을 변화시키는 단순한 지침이면서 온전히 행했을 때 우리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간증했다.

서울 서 지역 대회

서울 서 지역 대회 역시 1991년 4월 28일 오후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감리와 멀린 알리버트 장로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서울 서 지역 대회에서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한국에 처음 온 후의 지난 세월들을 말씀하면서 한국 전쟁, 4·19 학생 의거, 5·16 혁명 때 한국의 모습을 직접 보았으며, 그 당시 소수의 한국 성도들과 같이 한 지역 대회의 일화를 말씀했다. 난방 시설이 없었던 시절의 한국 대회에서 말씀 중 난로의 연통이 떨어져 말씀이 지연되었던 것을 떠올렸다. 그 뒤 발전한 한국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복음이 한국에서도 더욱 널리 전파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힝클리 회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실한 성

도가 되어 에스라 태프트 벤슨 회장처럼 참된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남편은 아내에게 친절하고 충실할 것과 어머니는 자녀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자녀들을 사랑할 것을 권고했다.

1995년 9월 온누리 합창단 미주 순회

공연시 합창단 접근

온누리 합창단이 9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 간의 미국 순회 공연을 하였다.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가진 이 공연에는 단원과 관계자를 포함하여 총 82명의 일행이 참여했으며, 미국의 로스엔젤레스, 라스베이거스, 솔트레이크, 시애틀 등 4개 도시에서 공연을 하였다. 주로 경인지역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조직된 온누리 합창단이 창단된 1990년부터 미국 공연을 목표로 세우고 준비하여 온 결과이다. 힝클리 회장은 솔트레이크 공연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9월 8일 회장 사무실로 합창단원 모두를 초청했다. 한인상 형제, 고원용 장로, 후원회장인 송평중 형제와 모든 단원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환대를 받았다. 이 자리에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제임즈 이 파우스트 회장, 보이드 케이 패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및 많은 총관리 역원이 배석하였다. 오전 11시쯤 모두 한복으로 갈아입은 합창단이 우리 가곡 '보리밭'을 부르는 가운데 힝클리 회장을 맞았다. 이어서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를 부르자 힝클리 회장은 훌륭한 노래를 선사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한국의 모든 성도들에게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해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서 평화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씀했다. 말씀을 마친 후, 회장은 2곡을 더 불러주도록 요청했고 이에 합창단이 '경복궁 타령'과 '아리랑'을 부르자 아주 훌륭하다는 칭찬과 더불어 한국을 더 요청했다. 합창단이 '주의 기도'를 부르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자리를 함께 한 총관리 역원과 교회 직원들도 함께 지켜보며 박수를

보냈다. 회장은 계속해서 '애국가'와 '우리 다시 만나볼 동안'을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노래가 끝난 후 회장은 "이번 여행에 들인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하고 여러분의 희생에 감사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더욱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사랑과 감사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였다. 추석이기 때문에 단원들이 우리의 풍습대로 큰절을 올리자, 핑클리 회장도 맞절을 하여 모두들 당황하고 놀랐지만, 그가 얼마나 한국과 한국의 성도들을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었다. 1시간 가까이 계속된 접견이 끝난 후, 핑클리 회장이나 단원들 모두 이별을 아쉬워하며 그곳을 떠나왔다.

1996년 5월 홍콩 성전 헌납을 위한 여정에 한국을 방문

교회의 제15대 제일정원회 회장으로, 한국에 대한 지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고든 비 핑클리 회장 내외가 김볼 회장 이후 교회 회장으로서 16년 만인 5월 21일부터 23일 까지 십이사도 정원회의 조셉 비 워스런 장로 내외 및 북아시아 지역 회장인 데이비드 이 소렌슨 장로 내외를 동반하여 한국을 방문했

다. 홍콩 성전 헌납을 위한 여정에 일본을 거쳐 한국에 도착한 핑클리 회장은 5월 21일 부산과,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특별 한국 대회를 감리했다.

예정보다 조금 늦은 5월 21일, 낮 12시 30분 김해 공항에 도착한 핑클리 회장은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UN 묘지를 방문하여 6.25동란 중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세계 자유 우방 장병들의 넋을 위로했다.

UN 묘지 참배 후, 해운대 하이얏트 호텔에 여정을 푼 핑클리 회장 일행은 이어 오후 4시 30분 부산 스테이크 광안와드에서 열린 부산 선교부와 대전 선교부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사 대회를 감리하였다. 선교사 대회 후, 부산 지역의 초청된 전·현임 신권 지도자들 부부와 함께 만찬을 나누었으며, 7시 20분 쫘 대구, 마산, 부산 스테이크와 부산 서 지방부에서 모인 2,100여 명의 성도들이 참석해서 기다리고 있는 대회장(부산KBS 홀)에 도착했다.

핑클리 회장이 감리하고 부산 스테이크의 양기욱 스테이크 회장이 사회를 본 이 대회에서는 핑클리 회장은 "여러분이 신앙 속에서 걸어가면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결코 굶주리거나 헐벗지 않고 거주할 곳이 없지 않으며 참으로 행복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만이 축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이 위대한 나라도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했다.

이튿날 핑클리 회장은 서울에 도착하여 기자 회견을 위해 플라자 호텔로 향했다.

12시 10분부터 시작된 기자 회견에

는 조선 일보를 비롯한 국내 10개 주요 일간지와 연합 통신, 코리아 헤럴드의 문화부 종교 담당 기자들이 참석하여 오찬 및 기자 회견 순으로 진행되었다. 오찬 중에는 온누리 합창단이 아름다운 음악으로 후기성도 음악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기자 회견 후 숙소인 서울 하이얏트 호텔에 여장을 푼 핑클리 회장 일행은 잠깐의 휴식을 취한 뒤, 오후 4시 30분 영동 스테이크 센터에서 서울 선교부와 서울서 선교부의 선교사들을 위한 선교사 대회를 주관하였다.

이 모임에서 이어 6시부터는 서울과 경인 지역의 초청된 전·현임 신권 지도자 부부와 만찬을 나누었는데, 핑클리 회장은 참석한 신권 지도자 부부와 일일이 개인적으로 인사를 나누었다.

한편 이날 서울 대회가 열리는 올림픽공원 역도 경기장에는 오후 5시부터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모임 시작 30분전인 7시에 이미 대회장이 주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성도들로 가득 찼다.

모임 시작 10분 전, 핑클리 회장 일행이 참석한 5,500여 명의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을 부르는 가운데 입장하였다.

이 대회에서 마지막 순서로 말씀을 한 핑클리 회장은 "이 땅의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참으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선택 받은 특별한 백성들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녀야 하므로 다시 이곳에 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한국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에 대한 저의 사랑을 전합니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나라와 이 백성에 대한 큰 사랑을 전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오전에 서울 성전을 방문한 후, 오후 1시경 곧바로 다음 여행지인 대만을 향해 출발했다. ■



1996년 5월 특별 한국 대회

모임	일시	장소
귀환 선교사 모임	2005년 7월 27~28일(수, 목)	각 선교 지역
전국 귀환 선교사 대회	2005년 7월 30일(토) 오전 10시~12시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
문화의 밤	2005년 7월 30일(토) 오후 6시~8시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
한국 지역 대회	2005년 7월 31일(일) 오전 11시~오후 1시	서울 올림픽 공원 체조 경기장
전국 청년 대회	2005년 8월 3일~6일(수~토)	강원도 둔내 유스호스텔

아름다운 사람들

잠들어 있는 컴퓨터는 나에게 오라!!!

“오늘 세상에서 선한 일 했다? 궁핍한 사람 도왔나?” 오늘도 대전 스테이크 공주 와드 박인규 형제는 약해지려 하는 마음을 다잡고 위안과 힘을 얻기 위해 찬송을 부릅니다. 그는 1977년 가을 개천에서 떨어져 경추 손상을 입은 후 지체 1급 장애인으로 하루하루를 덧없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전화 번호부를 뒤적이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찾게 되었으며 선교사님의 편안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아 침례받게 되었습니다. 사고전에는 목공소를 운영하며 목수로서 생활했으나 신체적 어려움으로 컴퓨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막히는 부분이 생길 때 마다 대전의 이현주 형제가 공주로 달려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배운 덕분에 이제 박형제는 컴퓨터를 수리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충남 장애인 정보화 협회에서 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장애인들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컴퓨터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 컴퓨터를 수거, 보수하여 장애인과 기초 생활 수급자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라고 해도 낮은 가격이 아닌 컴퓨터를 구

하는 일에 늘 어려움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박 형제는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모사이아서 2장 17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웃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내어 놓는 일이야 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하는 박 형제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수족이 움직이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자신보다 못한 환경에 있는 소외 계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합니다. ■



지역 단신

자세한 사항은 www.ldschurch.or.kr 참조

- 광주 스테이크
광주 스테이크 여성 대회(2005년 6월 25일)
- 인천 스테이크
권영도 형제의 '인술린 분비세포' 개발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부산 서 지방부
구포 지부 지부 회장: 안재석(전임: 안중원)

수원 스테이크
안성 지부 감독: 오세윤(전임: 이호정)